

일상생활 안에서 신앙과 행동의 통합

다이앤 멘디토, OFS

국가회 부봉사자

그 첫 입맞춤

By Fr. Christopher, T.O.R.

National Spiritual Assistant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믿음 없는 실천은 사회 사업일 뿐입니다

앤 호프 멀퀸(Anne Hope Mulqueen), OFS

미국 국가 양성 위원회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청년들을 위한 도전

Kathleen Molaro, OFS

청년 프란치스칸 위원회 회장

믿음과 실천: 초월인가, 내재인가?

Bret Thoman, OFS

하느님의 기쁨은 우리를 복음 선포자로 만듭니다

Francine Gikow, OFS 프랜신 기코우, OFS

일상생활 안에서 신앙과 행동의 통합

다이앤 멘디토, OFS

국가회 부봉사자

세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인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신앙을 살아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회칙은 우리의 소명이 세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서약을 통해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서약 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신앙과 행동의 통합은 성령의 열매, 회칙에 대한 충실한 헌신, 그리고 개인적인 증언을 통해 드러납니다.

일상의 증거로서의 성령의 열매

성 바오로는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마태 7,16). 기쁨, 평화, 인내, 친절, 너그러움, 성실, 온유, 절제(갈라 5,22-23)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심을 보여 주는 가시적인 표지입니다. 우리가 회칙을 충실히 살아갈 때, 이러한 열매들은 피어나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기쁨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지속적인 자각이며, 인내는 타인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경청하고 성장하도록 돕게 합니다. 절제는 분노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과 행동을 가다듬게 합니다. 이처럼 날마다의 회개는 복음 선포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는가?

회칙 제 4 조부터 제 10 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 줍니다.

- 복음의 추종자들(제 4 조)
-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제 5 조)
- 그분 사명의 증인이고 도구인 사람들(제 6 조)
- 날마다의 회개를 추구하는 참회자들(제 7 조)
- 기도하며 관상하는 사람들(제 8 조)
-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제 9 조)
-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제 10 조)

이 조항들은 우리가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는 다르게 살아갈 용기를 가지도록, 사랑받기 어려워 보이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그리고 말과 침묵 모두를 통해 그분의 사명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도전하게 합니다. 날마다의 회개, 기도, 그리고 자신을 비우는 너그러움은 우리의 프란치스칸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 표지입니다.

초연함과 정의의 삶

회칙 제 11 조부터 제 18 조는 이러한 비전을 바깥으로 확장시킵니다. 이는 재물과 권력에 대한 초연함(제 11 조), 마음의 순수함(제 12 조), 타인에 대한 수용(제 13 조)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형제적이며 복음적인 세상을 건설하도록(제 14 조), 정의를 증진하도록(제 15 조), 인간 공동체의 창조와 구원에 동참하도록(제 16 조) 소명받았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제 17 조, 제 19 조)로서, 또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이들로서(제 18 조),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보편적 형제애의 비전을 살아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연함은 물질적인 것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제와 집착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공감으로 경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의는 대화와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대한 책임 있는 돌봄은 창조주에 대한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정체성과 행동을 함께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경청하는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맡은 관리자로서 창조세계를 돌봅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서서 단순히 봉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합니다. 관계를 가꾸고, 이방인을 환대하며, 소유와 인정에 집착하지 않는 단순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너그럽고, 기쁘며, 친절하고, 온유하며, 자비로운 사람들로서 교회의 사명을 지지하고 모범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복음을 살겠다고 의식적으로 약속하며, 프란치스코 정신으로 세례의 소명을 삶 속에서 실현합니다.

신앙과 행동의 통합

행동 없는 신앙은 메말라 버릴 수 있고, 신앙 없는 행동은 자기중심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양육된 우리의 회칙은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신앙과 행동을 통합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안에 씨앗을 심으시며, 기도와 회개를 통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프란치스코적 봉사와 정의,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일상도 복음의 선포가 되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이 되며, 신앙과 행동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증언하는 살아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 첫 입맞춤

By Fr. Christopher, T.O.R.
National Spiritual Assistant

성 프란치스코는 진정한 신앙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고 하면서 그의 글과 전생애에 걸쳐 모범을 보여줍니다. 나병환자에게 한 그 첫 입맞춤, 그리고 산다미아노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주고받은 그 첫 입맞춤은 겸손, 사랑, 평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봉사를 드러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우리의 회칙과 생활로써 '거룩한 복음을 지킨다 (말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그 첫 입맞춤은 하느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이고 자비로운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병든자와 가난한자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보는것, 소외된이들을 포용하고, 우리중 가장 약한이들을 섬기는것 이었습니다. 신앙의 표시로 그 첫 입맞춤은 고통받는 인간을 실질적으로 포용했습니다. 신앙은 인생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여정을 필요로 하는데,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그것을 모델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지 말로만 하는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함과 집착에서 벗어남의 입맞춤은 소유가 아닌 영적 풍요를 가져옵니다. 하느님과 다른사람들에게 집중하면 삶이 단순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의 글은 가난과 단순함을 옹호하며, 물질적 소유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고 믿습니다.

평화와 화해의 입맞춤은 개인적이거나 외적인 고난과 상관없이, 평화롭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반대에 맞서면서 팔복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추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미움이 있는곳에 사랑을 뿌리는 행동이며, 단순한 말보다 진실을 더 강력하게 담고 다툼이 있는곳에는 용서를 하는것 입니다.

참회와 희생의 입맞춤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결합될 때 행동으로 드러내는 자기 부정이며, 자신의 희생을 통해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삶 전체는 그가 지켜왔던 특권적인 삶뿐만 아니라, 단순한 입맞춤의 제스처 안에 모두 열렸습니다.

그는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가치관 모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입맞춤은 프란치스코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 입맞춤은 그가 세상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살아가려는 사명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입맞춤의 친밀함 교감은 프란치스코가 모든 인간 과 모든 창조물이 아름답다는 깨달음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은 신의 보살핌과 목적 안에 있습니다. 입맞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없애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도록 이끌며, 하느님의 풍성한 은혜의 선물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복음을 실행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반문화적인 삶을 살도록 합시다. 우리의 옛 방식을 버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창조물을 포용합시다. 이는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로, 심지어 육체적 죽음도 자매로 여기게 합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하느님의 '숭고한 겸손'을 반영하며, 하느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믿음 없는 실천은 사회 사업일 뿐입니다

앤 호프 멀퀸(Anne Hope Mulqueen), OFS

미국 국가 양성 위원회

믿음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전능하신 분과 맺는 은총 가득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식별**하도록 도전받습니다. 참된 믿음은 실천으로 이어지며, 그 실천은 각자의 삶 안에서 펼쳐지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야고보 서간 2,14)

참된 믿음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며, 우리의 행동을 그분의 뜻에 맞추게 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성경과 교회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했듯이,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로 사랑해야 합니다. (1 요한 3,18)

우리의 **사부 프란치스코**는 행동으로 드러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와 사회적 지위를 포기한 그의 급진적인 선택들은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믿음에 근거한 행동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예는 나병 환자들을 돌본 일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에 대한 자비로운 봉사를 통해 신앙은 가시화되었고, 그가 섬긴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행동으로 표현된 사랑은 믿음의 고동치는 심장입니다.

또한 **성녀 클라라**의 모범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이끌린 그녀는 가족들의 기대를 뒤로하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뜻임을 믿으며 '가난의 특권'을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강인한 지도력을 통해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냈고, 가난한 자매들이 겸손과 사랑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수호성인인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과 **프랑스의 성 루도비코** 또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벳과 루도비코는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자비의 행동을 통해 자국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며 **전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신앙을 살아내는 방법의 본보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는 바를 올바르게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형성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동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회칙 제 15 조**는 신앙과 실천의 연결고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회원은 정의를 촉진하도록 자신의 개인 생활로써 증거하고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활기에 찬 창의력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특히 사회 생활의 각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자신의 신앙에 걸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으로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평화, 정의, 생태 및 기타 선행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선하고 정의로운 모든 것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깊이 뿌리박고 살아가는 재속인으로서, 우리는 바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들을 비롯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모든 활동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사도직과 사명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지향을 믿음과 일치시키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 특히 **사랑, 진리, 자비, 용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라고 말씀하시며 실천하는 믿음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믿음 가득한 실천과 제자직의 상징입니다. 사랑은 모든 이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합당한 생활 여건" (회칙 13 조)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보이지 않는 믿음은 사랑의 행동을 통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마침내 창조주를 만날 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마태 25,21).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참조)."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청년들을 위한 도전

Kathleen Molaro, OFS

청년 프란치스칸 위원회 회장

다양성

주교님들께서 Connecting Young Adults to Catholic Parishes 에서 “오늘날의 청년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문화적으로 다양한 세대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청년들은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려는 새 부모일 수도 있고, 혼배성사의 삶을 배우는 신혼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거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독신, 사제, 수도자, 수녀의 삶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 경제, 지리적 차이가 더해져 아름답지만 도전적인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신앙을 선택한 젊은이들은 그 신앙을 일상생활과 연결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앙과 실천

청년들은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책임을 감당하면서 신앙 생활을 발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한 젊은 여성이 미사 후에 “다음 주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오후 2 시에 낮잠을 잘 수 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 순간이 바쁘게 지나가요. 일요일 아침에 집에 있고 싶은 유혹이 커요. 두 아이를 데리고 한 시간을 보내니 미사에 제대로 참석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애쓰는 걸까요?” 또 다른 청년은 “미사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질문했습니다.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고, 서로 격려하며 공동체의 기쁨과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몇몇 어른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계속 질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서 신앙 생활이 단순히 교회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와 선택을 통해 우리의 영성을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것을 목격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이 넘치는 활기찬 공동체로 보고 있을까요?

믿음을 행동과 연결하는 것은 강력합니다. 젊은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특별한 기도의 밤을 마련하며, 지역 순례에 초대하는 것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고, 예전처럼 열심히

일할 수는 없지만, 활기찬 신앙으로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신뢰와 기쁨의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2022 년 개정된 재속 프란치스코회 예절서에 Tibor Kauser(국제형제회 봉사자)는 “우리는 밤색 수도복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도복은 친절함, 하느님과 서로에 대한 눈에 보이는 사랑, 봉사하려는 준비, 소박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수도복은 기도, 성사 생활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진정성과 헌신, 그리고 특히 기쁨으로 당신의 수도복을 입으세요. 세상 속에서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본보기가 되세요. 그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자신의 신앙 생활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is Photo by Unknown Author is licensed under CC BY-SA.

믿음과 실천: 초월인가, 내재인가?

Bret Thoman, OFS

재속프란치스코회 형제회를 가까이서 지켜본 이라면, 형제들이 신앙을 살아가고 실천하는 방식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전례와 예배, 도덕과 덕행, 그리고 교리를 신앙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이들에게는 기도와 전통, 신앙의 신비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들은 교회가 옳고 그름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교회내 다양한 의견 속에서 중심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믿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평화와 인종문제,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 생태계 보호와 같은 문제에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신합니다. 이들은 신앙과 도덕의 문제에서 '양심의 소리'를 중시하며, 전례 또한 형식보다는 공동체 중심의 평신도 참여가 두드러지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차이를 '보수와 진보' 혹은 '전통과 개혁'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곤 합니다. 하지만 더 적절한 표현은 초월성(Transcendent)과 내재성(Immanent)일 것입니다.

초월성이란 하느님을 세상을 너머 계시는 분,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며 인간의 지혜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느님은 물질세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재성이란 그리스도께서 육화하시어(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즉 '이 땅'에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믿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몸을 낮추어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시며, 성사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초월성과 내재성 중 어느 쪽이 옳은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셨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리 곁에 머물기 위해 오셨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신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전능하신 분, 하늘과 땅,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하느님에게서 나신 참하느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영원하고 거룩하시며,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분임을 선포하는 '초월성'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내재성'입니다.

따라서 초월성과 내재성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참하느님이시며 참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실천'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실천은 결코 나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 두 가치를 완벽하게 통합한 모범입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천사적 인간 프란치스코는 결코 선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야곱의 사다리에 있는 천사들처럼, 하느님께로 올라가거나 이웃에게로 내려갔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이웃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데 쓰고, 남은 시간은 관상의 평온한 황홀경 속에서 하느님께 바쳤다."
(대전기 13, 1)

우리도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받아, 예배를 통해 하느님께로 오르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웃에게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위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형제회 나눔 주제]

1. **시작 기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우리 형제회를 일치와 참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은총을 청합니다.
2. **함께 읽기:** 신경(사도신경 또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천천히 함께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머물러 잠시 묵상합니다.
3. **개인 묵상 및 나눔:**
 - '초월적인 하느님'과 '내 안의 하느님' 중 나는 평소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 있나요?
 - 기도(전례)와 활동(봉사)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 내가 겪는 고충(긴장이나 갈등)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계신가요?
 -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은 오늘 나에게 믿음과 실천의 조화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4. **실천 다짐:** 이번 한 주간 구체적으로 실천할 '예배 행위' 한 가지와 '사랑의 실천' 한 가지를 정해 봅시다.
5. **마침 기도:**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느님의 기쁨은 우리를 복음 선포자로 만듭니다

Francine Gikow, OFS 프랜신 기코우, OFS

전 미국 세속 프란치스코회 국가회 봉사자(2006-2009)였던 패트릭 멘데스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입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카리스마입니다. 곧 평화와 기쁨, 그리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의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소극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며, 변증학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그저 평신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저 평신도일 뿐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며, 이 세상 안에서 그분의 팔과 눈이 되어, 지금 이 순간 다른 이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비추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손에 맡겨진 우리 삶의 가치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도록 허락드리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과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아 숨 쉬는 삶보다 더 신뢰를 주는 증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길 때, 그분 현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은 전염되듯 퍼져 나갑니다. 하느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삶보다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마음을 열수록,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현존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더 민감하고, 깨어 있으며, 의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세상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저만의 “하느님 보물찾기”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영적 여정을 걷는 이들은 하늘과 하느님의 장엄함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들은 창조된 세상과 그 안의 관계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 아기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합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나병 환자 안에서, 잊힌 이들 안에서, 상처 입은 이들 안에서, 그리고 ‘작은 이들’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자연을 통해 하느님께 이끌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좋다”고 창조하신 세상 안에는 그분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체성사, 성경, 성사들, 배우자와의

관계, 형제회, 교회, 그리고 사회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총은 하느님을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곳에서 찾도록 우리를 부르며,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듯 느껴지는 장소를 “얇은 곳(thin places)”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리이며, 하느님께서 이 세상으로 “스며 나오는” 듯한 곳입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모든 것 안에 현존하시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과 그분의 활동을 자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고통 속에서, 그리고 기쁨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우리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보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느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현존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관계와 대화는 더욱 의식적이고 깊어집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했기에, 우리는 더 큰 기쁨과 감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체험하며 생겨난 기쁨은 우리를 복음 선포자로 만듭니다. 사랑과 기쁨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복음 선포자가 됩니다.

얀 노보트카의 노래 *The Presence You Are* 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 지닌 현존, 당신 자체입니다.”

사이드바

하느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삶보다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없습니다.